

한반도,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진다!

기상청, 2011년 안면도 395.7ppm 관측 ... 지구 평균은 390.5ppm

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(CO_2)의 한반도 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고 매년 2.1ppm씩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기상청이 5월22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감시 전문가들을 초청 <기후변화감시 학·연·관 워크숍>에서 기상청 신임철 연구관은 2011년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395.7ppm로 나타나 지구 평균 농도인 390.5ppm보다 높았다고 밝혔다.

1999년 조사된 370.7ppm에 비해 12년간 25.0ppm이 높아진 것으로 매년 2.1ppm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.

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(CH_4)과 육불화황(SF_6) 농도 역시 연평균 8.1ppt로 2010년 지구 평균농도 6.5ppt 보다 높게 조사됐다.

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조만간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수준인 400ppm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23>